



2021년 9월 5일(제1051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의 첫인상은 어떨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어떤 말을 건네나요? 보통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말해야 입만 아프겠지만, 첫인상이 강렬하게 남아 관계를 맺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9월 첫 주, 특히 순교자 성월 첫 강론에서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신앙인의 아픔을 편지로 어루만졌던 바오로처럼 말입니다.

바오로는 항상 사목 편지인 ‘서간’을 쓰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편지의 결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지요. 저도 이 방법으로 강론을 전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 비슷하게 전개하려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서품을 받고 작년 7월에 광주 1전투비행단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 생활이지만 공군은 처음이고, 처음 군 성당 사목이지만 주임신부이기에 낯설면서도 흥분되었죠. 이 감정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본당에 오자마자 휴가가 제한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삿짐을 가져올 시간을 준다고 해서 ‘미사 도구’와 ‘군복’만 겨우 가지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휴가 제한으로 변변한 옷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7월 말에 본당 사제관과 교육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와 다른 일상을 즐기는 동기들의 모습이 부러워 일과 후 혼자만 지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 말씀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마르 7,33)

오늘 복음 속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에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로 병이 나았습니다.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인격적으로 서로가 주

고받은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어쩌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을 만드는 ‘내어줌’에서 나오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행위를 발견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인 것이죠. 저도 비록 출발은 자신 안에 간혀 답답했지만, 이 시작 덕분에 군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빠르게 만난 것 같습니다. 군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명령의 답답함 속에서, 행정의 어려움 속에서, 상황의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분의 자리를 필요로 함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과 만날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그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성숙의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이 시간의 끝에서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 내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혼자 계실 것입니다. 이 성숙의 시간이 나의 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마르 7,33)



장대환(베드로) 신부
성요한(1진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35,4-7ㄴ

회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시

야고 2,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르 7,31-37

영 성 제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이홉 번째 시화

그는 우리를 그의 동료들한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는데 한 달 이상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교우들은 슬픔으로 낙담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대화에서 풍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외교인들의 호기심을 끌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같이 보였을 때 우리는 우리 종교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가축 시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얼마 받겠소?”

“80냥이요.”

“너무 비싸요. 자, 50냥 줄 터이니 당신 짐승을 주시오.”

“80냥 이하는 절대로 안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교우들로부터, 조선 교회가 박해 이후 상당히 평온하고, 많은 수의 교우들이 박해의 위험이 덜한 남쪽 지방으로 피신하였으며, 여러 가족들이 신앙으로 개종하였고, 교우들이 서양 선교사를 그들의 집에 오래 숨겨 두는 것이 어렵겠지만 천주님의 자비를 믿고 선교사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북쪽으로의 영입은 한 국경에서 또 다른 국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 외에 나라 전체를 통과해야 할 이유 때문에 변문 쪽이 덜 위험할 것이라는 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하직의 표로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었고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읍내로 들어가서 군중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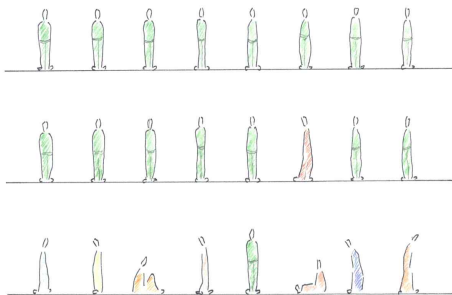
경원 시장은 우리에게 이상한 풍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사꾼들은 도착하자 즉시 그들의 상품을 늘어놓을 권리가 없었고 신호를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사람들이 깃발을 높이 올리고 북을 쳤습니다. 그 순간 성급한 군중이 밀집하여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모두가 뒤섞여서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하며, 머리가 멍할 정도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한 소리들이 근처 산에서 메아리쳐 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발행,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지류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일치



같은 색.	다양성 안에
같은 옷.	또 다른
똑같아야 일치를	일치가
이루는 건 아니잖아.	시작되지 않을까.

상화이야기

귀먹은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15세기 플시본 중 일부 / 적지 미상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라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열정은 우리가 회피하게나마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 가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듯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 주시고 묶인 혀를 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 세상 것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을 키워 올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귀여겨들음으로써 믿음을 키워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귀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입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발췌 -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3주일: 쌍용 우석재 신부

◆ 교구장 동정

- 신부 및 본당 방문

때: 9월 6일(월) ~ 9월 10일(금)

본당 4곳, 신부 12명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내

- 네이버 오디오클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